



〈예수님과 12제자들〉, 12세기, 목판에 템페라, 카탈루냐 박물관, 스페인

성화 해설

성당의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이 성화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묘사되어 있다. 12명의 제자들은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양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각 제자들은 자신의 신원을 밝혀주는 지물을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커다란 열쇠를 손에 들고서 있다.

입당송 시편 66(65),4

제1독서 사무 3,3ㄴ-10,19

화답송 시편 40(39),2ㄴ과4ㄴ,7-8ㄴ,8ㄷ-9,10(◎8ㄴ과9ㄴ)

◎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주님의 뜻을 즐겨 이루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셨도다.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 주셨도다. ◎

○ 주님께서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님께서서는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에 대하여 쓰여 있나이다. 저의 주 하느님, 저는 주님의 뜻을 즐겨 이루나이다. 제 가슴속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시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6,13ㄷ-15ㄴ,17-20

복음환호송 요한 1,41,17ㄴ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은총과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도다. ◎

복음 요한 1,35-42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께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저의 술잔도가득하나이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면!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 분명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요한의 출중한 증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요한은 맡은바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증언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준 믿음의 길잡이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첫 번째 내용은 ‘하느님의 어린양’ 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언한 하느님의 어린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십니다 (1,29). 그 같은 증언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정화시킬 메시아에 관한 예세네와 사람들의 전승과 승리자 어린양에 관한 묵시문학적인 전승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칭한 것은 그분이 파스카 어린양이시며 하느님의 종이시라는 사실을 표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최종 지점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그분께 다가가 그분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도록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안내를 받아 예수님께 다가가게 될 요한의 제자들은 죄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해방시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외친 안드레아의 감격에 찬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 의욕적으로 펼쳐가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기쁨을 토로하는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새로운 삶을 가슴 벅찬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될 이들은 우선적으로 요한을 추종하던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

다. 그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스승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관심을 송두리째 던져버릴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의 위대함을 봅니다.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절제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 듣고 그래서 증언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인지를 일깨워 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10,13-14)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요한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있는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사회의 복음화도 가능해질 텐데 과연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36).

우리의 형제자매들



서영남 베드로 | 민들레국수집

자 본의 힘과 폭력이 더욱 기세를 떨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했고, 생활도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간 존엄성을 뒤로 미뤄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힘없고 가난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을 겪는 짐승 같은 삶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움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발적 나눔으로 욕심에서 해방되어 하느님께만 매달릴 때 적으로 보였던 사람들 안에서 형제자매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형제자매를 만나 일치될 수 있습니다.

인천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기꺼이 돕겠다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마흔네 살입니다. 딸이 6살 때 이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딸은 여고 1학년이고 아들은 중 2학년입니다. 사글세를 체납해서 보증금도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서 가재도구를 압류당

했다고 합니다. 집달관에게 쫓겨나 아이들과 찜질방에 있다가 돈이 떨어져서 딸과 아들은 딸의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자기는 그냥 역에서 노숙한다고 합니다.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동네에 재개발 열풍이 불어 외지인들이 집을 사 놓고 세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겨우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단칸방입니다. 아빠와 딸과 아들인데 아무래도 방 두 칸은 있어야 합니다. 민들레의 집 식구 중에 방이 두 칸 있는 집에서 사는 용진 씨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방을 바꾸자고 했더니 좋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비정규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사는 것이 힘겹지 않았는데 해고된 후에 하청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죽어라고 해도 한 달에 칠십만 원 벌기도 어려웠답니다. 집세 독촉, 빚 독촉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삿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불과 그릇 그리고 수저 등을 챙겨주었습니다. 냉장고와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밥솥을 마련하러 중고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세탁기는 놓을 자리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주면서 기분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함께라서 마음 편하게 잘 잤다고 합니다.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가족입니다. 죽도록 일했는데도 살아갈 길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을 직접 파괴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가톨릭 교리서 2258항. 생명의 선물 5항).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어떤 인간 생명도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사람이 함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하느님의 것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남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는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한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칠 경우 하느님께서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양심 속에 새겨진 생명의 불가침성”을 상기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40항).

그러나 오늘날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과 말기 환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연약한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도전은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에제 37,17)

2009년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작된 바오로의 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분열로 상처받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도움 속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일치 사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오로 사도의 일치 정신을 본받아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에페 4,4-5)임을 고백해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2009년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의 분단 상황 속에서 열망하고 있는 교회 일치 운동을 전 세계 교회에 알리고자 준비한 일치기도주간 기도문이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받아들여져 한국 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주간 기도문이 전 세계 교회에서 바쳐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에제 37,17)라는 주제는 분열된 이스라엘이 점령당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유배지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강복하시고 다시 일치를 회복시켜 주시며,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말씀으로, 분단된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열의 현실들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교회들 간의 오해와 분열,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분열, 빈부 격차로 인한 분열, 생태계 과

괴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분열,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 속에 분열된 인간 세상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의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는 일치 정신에 따라 우리 주변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서로 갈라져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소서”(요한 17,21)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 일치란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 의탁하는 영적 일치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모든 신자들이 가족과 직장 동료, 동아리 모임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서로 다른 교파에 속한 신자들과 만나게 될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운 삶의 체험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면 분열의 현실을 극복하고 참된 일치와 화해를 이룰 씨앗을 이 땅에 뿌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주교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소식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1월18일(일)~25일(일)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간에 특별히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보 4면에 게재)를 바칩니다.

오늘(1월18일)은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월25일(일)은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주교회의가 지정한 '해외 원조 주일' 입니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과 겹쳐 이날 실시 하던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을 오늘(1월18일) 실시합니다.

서울대교구 사무실 이전 안내

서울대교구는 가톨릭회관에 있던 서울대교구 내 부서를 사목센터(중구 명동 2가 1-5)로 이전합니다(전화번호는 동일).

부서	위치	이전일
관구법원	사목센터 1층 좌측	1월19일(월)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사목센터 1층 좌측	1월20일(화)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목센터 5층 우측	1월22일(목)
수도회 담당	사목센터 5층 우측	1월23일(금)
향심기도	사목센터 5층 우측	1월29일(목)
중서올지역	사목센터 5층 우측	1월30일(금)

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구역(반)장을 위한 미사

	오전 10시	오후 2시
1월21일(수)		흑석동성당
1월29일(목)	노원성당	
2009년 '명동(가톨릭회관)' 월례연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월23일 김정진 바오로 신부(83세) 2004년, 용인

'한국천주교사회복지편람' 발간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는 전국 15개 교구 985개의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목록을 담은 '2008 한국천주교사회복지편람'을 발간했습니다. 편람에 실린 시설의 자료는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홈페이지(www.caritas.or.kr)에서 1월 말부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 문의: 460-7641

●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

서울대교구 봉천1동성당 사무장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믿음생활자로 회계 및 PC 가능한 남교우 / 문의: 872-9455(1월20일까지)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서울대교구 역삼동성당 관리인 모집

- 분야: 야간관리, 관리보조 각 1명 / 면접은 개별통보함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50대 후반(1월25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553-0801 역삼동성당 사무실(제출서류 반환 안 됨)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경찰서 유치장 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 견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경찰사목위원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 모집

- 분야: 모금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1월23일까지 접수)
- 대상: 대졸이상, 사회복지 전공자(모금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업무 종사 경험자, 장애인 우대) / 서류전형 후 면접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bokji) 참조
- 문의: 727-223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행정팀

1월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미사

- 집전 및 강론: 장궁선 신부(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때, 곳: 1월20일(화) 오전 11시,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4기 예비부모학교

- 대상: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 또는 개인(선착순 20명)
- 때: 2월7일~21일 매주(토) 오후 2시~5시(3주간) / 회비: 4만 원
- 곳: 교구 사목센터 사목국 회합실 / 2월4일(수)까지 접수

1주	하느님 안에 준비된 부모 되기	문의: 727-2072 사목국 가정사목부
2주	건강한 임신, 행복한 가정	
3주	자연임신법 배우기	

서울대교구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일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묵상과 기도, 성경이 어우러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The word among us 지음 | 가톨릭출판사 옮김
128×188 | 96면(한글판), 80면(영문판) | 각권 900원

잠시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벅찬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지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이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행되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월간지 <The Word Among Us>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는 **말씀지기**에는 매달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인물을 골라 심도 있는 해설을 덧붙이는 '영성 에세이', 가톨릭 성인이나 독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소개하는 '내 안의 말씀', 연중시기로 나뉜 매일의 전례에 따라 깊이 있는 묵상 글을 싣고 있는 '30일 묵상', 사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이 솔직 담백하게 담겨 있는 '아침 프락'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다.

“당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시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잠언과 영적인 권고를 모아 엮은 책. 주제별로 매일 한 조목씩 묵상할 수 있도록 365개로 구성하였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홀로 침묵 중에 성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묵상한다면, 점차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오히려 한 무(無)에 이르러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성요한
잠언과 영적 권고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옮김 | 120×170 | 224면 | 6,000원

우표 1,500여 장에 생생하게 담긴 예수님의 일생!

최익철 신부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방대한 우표 중에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된 우표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마태오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요한의 등장, 갈릴래아와 예루살렘 여정 중의 선교,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로 나누어 정리한 이 책은 평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우표를 보며 예수님의 삶을 생생하게 묵상할 수 있다.



예수의한평생

최익철 지음 | 154×224 | 524면 | 50,000원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

· 입장권: 전석 3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762-9190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18시 / 일 15시 / 1월24·25·27일 15시·18시



1996년에 초연된 작품으로 영화 '약속' 과 드라마 '연인' 의 원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스테디셀러를 바탕으로 한 연극으로, 배우 유오성과 송선미가 출연한다. 상처투성이 환자인 조직폭력배 '공상두' 와 신출내기 여의사 '채희주' 의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이다. 3월8일(일) 까지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에서 공연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창작뮤지컬 '결혼'

· 입장권: 전석 일반 3만 원 / 예매 및 문의: 319-8020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6시30분·20시 / 일 16시30분



가진 것 없는 남자가 돈이 많은 것처럼 꾸며 여자에게 청혼하지만, 결국 사기행각이 드러나 빈털터리가 된다. 하지만 삶과 결혼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뜬 남자의 진심을 안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인다. 관객의 참여가 재미를 더하는 창작 뮤지컬로 2월28일(토)까지 명동 삼일로극장에서 공연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